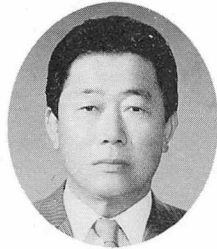


##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국제경쟁 이겨내자



기 정 도  
( 본회 부회장  
(주)송원축산 대표이사 )

1995년 올해년도 힘차게 떠올랐다. 양돈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돼지의 해를 맞이하는 것이 새해에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하여 준다.

그러나 우리 앞에 밀려오는 국제 개방화의 속도는 우리를 위축되게 한다. 국제 개방의 UR은 막을 내리면서 더욱 더 거대한 WTO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양돈인의 한 사람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현재 우리의 현실인 GATT 체제는 그래도 일반 무역협정 부문에서 규제가 훨씬 느슨하고 명문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법, 비합법으로 여러가지 예외조치가 인정되지만 WTO 체제로 새로운 회원국들의 무역분쟁과 마찰조정 등을 담당하여 무역 질서에 필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고 회원국들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특히 UR 협정을 어길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게 되는 법으로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WTO 체제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지난해 UR 협상의 결과에 따라 '95년부터 냉동 돼지고기가 MMA 방식으로 공식 수입되며 '97년 7월 부터는 양돈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므로 지금 모두가 단합하여 외국의 물밀듯이 밀려드는 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66

지난해 UR 협상의  
결과에 따라 '95년부터 냉동  
돼지고기가 MMA 방식으로 공식 수입되며  
'97년 7월 부터는 완전 개방이 이루어지므로  
지금 모두가 단합하여 외국의 물밀듯이  
밀려드는 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99

우리 양돈인들이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선

첫째, 전국에 있는 각종 양돈인 단체 및 기업농장, 비회원들 모두 대한양돈협회에 참여토록 하고 각종 단체는 양돈협회 회관에 자리를 위치해 관계 당국과 양돈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두텁게 하여 앞으로의 국제 개방화 대책을 세우기 위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루어야 하며 모두 조합된 모습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국제 경쟁력을 능가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둘째, 현재 우리가 당면해 있는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사료 원료의 관세율 면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셋째, 양돈 생산업자 스스로 양돈 선진 경쟁국 수준 이하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생산 규모의 확대, 시설 자동화 및 전문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양돈 자조금 제도의 완벽한 참여 및 시행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모성 질병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양돈업자 스스로 차단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정부, 국회, 단체 및 생산자인 농민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닌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